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하 문화 나눔 확산을 위해

지역 기업·지자체 메세나 활동 적극 나서라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문화 나눔' 프로그램인 문화바우처와 사랑티켓은 일반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게 급선무다.

올 광주 지역 문화바우처를 이용한 사람은 71개 작품에 7천 800여명. 지난해보다 일반 회원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 시설 등 단체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내년에 문화바우처 전체 예산이 26억원에서 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9천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던 광주의 경우도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전환된 사랑티켓은 초반에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바우처 참여 확대

'문화나눔'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는 메세나 활동이다.

가장 지원 규모가 큰 (사)한국메세나협의회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은 서울의 이름있는 공연 단체나 시설 등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최근 지역에서도 메세나협의회가 꾸려지는 등 활기를 띠고 있지만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여전히 무풍지대다.

13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즐거운 나눔티켓'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메세나협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3억원 규모로 주도하는 매칭 펀드(기업체가 문화단체에 지원하면 같은 액수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역 메세나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은 게 각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부산의 경우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예총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울산시 역시 최근 매칭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가 주도적으로 울산메세나협의회를 이끌고 있다.

'문화 나눔'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시 운영 단체들이 풀어야할 숙제다. 최근 늘어난 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의 경우 차별성이 거의 없었으며 일부 단체의 경우 프로그램 참가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프로그램 자체가 흐지부지돼 땜질 형식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또 공모에 뽑히지 못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단체들과 협력기관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고, 프로그램 관리의 노하우가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로 시설이나 기관에 속해 있는 이들이 아닌, 개인을 발굴하는 것도 시급하다. 각종 시설은 교육을 골라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됐지만 개인들은 혜택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밖에 일반 기획사나 공연단체들의 객석 나눔에 대한 관심들도 더욱 높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바우처를 운영하는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객석을 기부하는 사례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문화바우처 시행 시기가 보통 3~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수혜자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급선무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향, 국악관현악단 등 6개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소외계층을 위한 객석 나눔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끝〉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나눔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기업체와 지자체,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사진은 광주시 북구청이 진행한 '문화사랑방' 프로그램.

지난 22일 광주 바람개비어린이도서관을 찾은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들이 박재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관장에게 어린이 책을 기증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바람개비도서관 책 선물 보따리

토공 광주전남본부·광주일보 어린이 도서 300여권 기증

지난달 문을 연 광주시 북구 용봉동 바람개비어린이도서관에 지난 22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광주일보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핸드 인 핸드'를 를 후원하는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이하 토지공사) 직원들이 어린이들에게 작은 선물 보따리를 전달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은 것.

이날 광주일보사와 토지공사는 그림책 등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공주님이 된 여왕', '서울 구경' 등 2008년 하반기에 발간된 어린이 신간도서 300여권을 전달했다.

현재 광주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가운데 바람개비도서관은 광주 풍암지구의 아이숲어린이도서관과 함께 민간인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공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을 받지 못해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태다.

현재 바람개비어린이도서관의 소장 도서는 약 8천권 수준. 최근에는 한 독지가가 200여권을 기증하는 등 초창기에 비해 조금씩 정성을 보태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상태다.

도서관에서 만난 서동혁(9·태봉초 2년)군은 "집 근처에 책도 읽고 놀 수도 있는 도서관이 생겨 생겨서 너무 좋다"며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누나와 자주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도서관을 찾은 토지공사 업무지원팀 박기학씨는 "도서관을 방문해 보니 아이들에게 참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책 기증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다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춘 관장은 "새책이 많아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애정을 갖고 책을 기부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433-127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